

## 어떤 청년 문화연구자의 청년 연구에 대한 소고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송동욱

### 1. 고민을 시작하며

“청년들에게 자아실현을 향한 도전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늪’과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포기 내지 실패와 함께 그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투여했던 시간과 금전이 무화됨과 동시에, 그 자원으로 다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 그러한 결과 기약 없는 희망과 자신이 투여한 유무형의 자원이 매몰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사이에서 위태롭고, 외로운 출타기를 하고 있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항시적인 열패감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역량 강화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실패와 마주하면서 꿈을 타협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대상자들은 ‘새로운 진로 모색’과 ‘역량 계발’이라는 새로운 이중의 부담감에 시달리고도 있었다.”(송동욱·이기형, 2017, 71쪽)

위의 인용문이 현실감과 더불어 상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청년은 영화 제작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20대 전체를 영화에 바쳤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자아실현’을 포기한 이후, 타협적으로 대기업의 영화사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에 실패한 필자의 학부 동기이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은 일종의 경계자 입장에서 연구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필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통째로 부정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 인터뷰이의 자조 석인 토로에 상당 부분 공명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처지와 “후속의 실현은 정규직으로 생존하게 될 소수에게만 허용되는”(정민우, 2013, 10쪽) 준(準)학문후속세대의 일원이자 청년당사자이기도 한 필자의 처지가 몹시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강명구, 2014; 김선기 외, 2014; 정민우, 2013).

물론 이 인터뷰 대상자와 석사학위를 받은 필자를 ‘연령’, ‘같은 학부 출신’, ‘경제적 이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분야로의 투신 경험’ 등의 몇 가지 부분적인 공통분모에 기반하여, 평평한 동일 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를 포함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대다수 청년이 대면하는 ‘객관적인 기회와 주관적 기대 사이의 격차’가 심대한 구직 환경을 폭넓게 공유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최철웅, 2011).

이 글은 “나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라는 앞선 인터뷰이의 자조적인 질문에 공명할 수밖에 없었던 필자가 이에 대해 스스로에게 대답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부연하자면, 본고는 필자가 언론학 영역 내부의 비주류이자 재생산의 위기에 시달리는 문화연구 전공자로 정체화(identification)되는 과정에 대한 자전적인 복기로 시작하여, ‘청년’과 관련된 일련의 연속성을 띤 연구들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식 생산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의식 및 난점들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 작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은 자기민속지학이다. 자기민속지학은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주형일, 2007, 7쪽)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연구자 자신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한 사회 혹은 커뮤니티의 사회적/문화적 기억을 복원”(김영찬, 2011, 14쪽)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한 글은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사후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다소 마름질된 서사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의성의 표출, 기억의 왜곡 그리고 자기 정당화가 일부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나의 과거에 대한 나의 현재적 투시는 불가피”(전규찬, 2014, 74쪽)하다는 한계를 인정 그리고 경계하면서도, ‘현재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필자가 지식 생산 과정에서 겪은 다기한 실패들과 그에 따른 교훈들의 파편적인 흔적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발전적으로 상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 비춰 과거의 삶을 이해하거나, 거꾸로 지난 시간에 근거하여 현재의 삶을 자평하는 일종의 성찰적”

(전규찬, 2014, 74쪽) 글쓰기를 개진하고자 한다. 요컨대, 청년당사자이자 청년문화연구자이기도 한 필자가 수행한 연구에 대한 자전적인 성격의 글쓰기를 통해 청년 관련 문제를 문화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개입적으로 진단한 사례와 더불어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재귀적이고, 성찰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향후 (청년)문화연구(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간단히 먼저 소개하자면, 필자는 석사과정에 진학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세 편의 청년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했다.<sup>1)</sup> 첫 번째 논문은 지도교수와 동료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했으며, 두 번째 논문은 필자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이다. 석사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한 세 번째 논문은 본인과 지도 교수 2인의 공동 작업이다. 세 편 모두 청년을 주제로 한 논문이었지만, 세부적인 주제와 이론 틀은 상이하다. 1번째 논문에서는 구직 중인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서 청년층의 구체적인 주체화 양상을 포착하고자 했다. 부연하자면, 2014년 중순부터 작성을 시작하여, 학술지에 논문에 게재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 이 작업은 ‘구직’이라는 목적 지향성을 강하게 담지하고 있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삶을 재귀적으로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자기소개서’라는 특수한 매개체(catalyst)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경험이 물화 되는 양상 그리고 내부적인 분열을 봉합하는 냉소적인 청년 주체 내면의 복잡다단한 면모를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와 일련의 연속성을 가진 일종의 후속작인 두 번째 논문은 앞선 논문의 게재가 완료된 2015년 중순부터 2016년 중순까지, 약 1년간 진행되었다. 공동 연구 형태로 진행된 첫 번째 논문과 달리, 연구자 개인의 이론적인 관심사가 더욱 깊이 투사된 이 연구는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중심적으로 차용하여, 청년세대원들의 ‘삶의 방식(way of life)’ 내지 ‘서사(narrative)’를 분석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논문은 ‘삼포 세대’ 담론을 비롯한 청년 주체들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들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미디어 담론들에 관한 연구자 주변의 총 26명의 청년당사자의 반응 및 수용 양상을 독해함으로써, ‘헬조선’이라고까지 불리는 불안정한 현실에 대면하는 청년들의 삶을 탐구하고자 했다.

필자가 졸업한 이후 2017년 초부터 중순까지 약 6개월간 집필한 세 번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을 대폭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불안감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청년 주체들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감정적인 차원을 더욱 집중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 핵심 이론 틀로 설정했던 ‘이데올로기론’ 대신 레이몬드 윌리암스(1978/2009)의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 개념과 김홍중(2015, 2016)이 제기한 청년 세대의 ‘생존주의(survivalism)’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존의 인터뷰자료들을 재분석했다. 나아가 원고를 집필하는 동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발발된 촛불집회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을 추가함으로써 그들이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 의식에 더욱 초점을 둔 분석을 개진했다. 요컨대, 필자는 앞서 소개한 3편의 청년 연구에 대한 회고적인 복기를 통해서 한 청년 ‘문화연구자’가 ‘청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긴 느슨한 형태의 ‘작업 노트’를 자기 기술지 형식으로 정렬화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글의 전개에 앞서, 이 원고의 전체 구성을 미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광고, 홍보, 뉴미디어, 콘텐츠 등 응용분야를 전공하는 미국 출신 박사”(강명구, 2014, 127쪽)들이 중심적으로 포진된 기울어진 언론학 영역 내에서 “모호한 번호표를 불안히 짠 채 영영 ‘후속’의 대기실에 유폐될”(정민우, 2013, 63쪽)지 모르는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 (미디어) 문화연구학의 궤적에 발을 걸치고 있는 필자의 다소 느슨한 자기기술지를 통해서 이 시대 청년 연구자에 관한 사례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청년’이 ‘문화연구자’가 되는 단면을 시작으로, 그 과정에서 체화하게 된 필자 본인의 이론적 관심사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세 편의 청년 문화 연구를 연속적으로 진행한 계기에 대한 기억의 복구를 시도한다.

그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논문의 작성에서부터 세 번째 논문의 완료까지를 중심으로 필자가 수행한

1) 필자가 수행한 연구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이기형 외 (2015). 청년주체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구직 경험의 문화적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72호, 7-51], [송동욱(2016). 청년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삼포세대 담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학위 논문], [송동욱·이기형(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삼포세대’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호명에 대한 청년주체들의 체화된 대응과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4호, 28-98]

청년 연구의 과정을 자전적으로 복기한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장에서는 먼저 청년 연구를 수행하면서 대면하게 된 두 가지의 문제의식의 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필자가 겪은 연구의 어려움을 풀어낸다. 이 부분은 길게는 학부 시절부터, 짧게는 연구들을 진행하는 동안 필자에게 지적 영향을 준 지도교수, 코스월의 강의를 진행한 교수, 학위 논문 심사의원 그리고 학회 토론자들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 간의 의견 교환 및 지침들과 그에 대한 필자의 대응을 되짚으면서, 이론적 문제의식을 세공하고자 하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뷰자료 수집 과정’이라는 연구 과정의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에 천착하여, 그 당시 필자가 겪은 난점들에 대한 복기를 통해서 경험적인 방식의 청년 연구에 관한 사례를 보다 상세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은 세 편의 청년 연구를 모두 완료한 시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품고 있던 혹은 연구 도중 대면한 문제의식들을 사후적으로 회고함으로써, 연구 과정의 기억들을 성찰적으로 복기하고, 이를 통해서 여전히 남겨진, 그러나 충분히 정교하지 못한 문제의식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정련화하고자 한다.

## 2. 청년 문화연구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자전적인 복기

나는 2007년도에 서울 소재의 한 대학의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했다. ‘학벌’이라는 상징자본 획득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자연시켰던 학창 시절을 보냈던 필자는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깊은 자책에 빠졌다. 왜냐하면, 주변의 많은 동료가 대거 명문대로 입학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사교육을 위한 충분한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상층이라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희망하던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는 경제적 성공이라는 ‘결과’와 ‘개인의 역량’을 일치시킴으로써, ‘경제적인 것’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 배양을 강조하는 담론 효과를 발현시키는 보수 담론에도 동의할 수 없었거니와, 가족의 계층적 지위에 따른 입시 경쟁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 깊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 진보 담론 역시도 필자 개인의 역량 부족을 더욱 강도 높게 꾸짖는 것처럼 체감하기도 했다. 겨우내 획득한 ‘학벌’이라는 보상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도 않았으나, 온전히 나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지금 시점에서 회고하자면, 이는 필자가 경험한 그리고 앞으로 부단히 대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끝없는 ‘경쟁’에 대해 거리를 두고 사고하게끔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2007년은 ‘인서울’의 학벌이라는 상징자본이 ‘정규직 취업 자유이용권’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풍문이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학년 때는 놀아야 한다는 잔여적인 동시에 다소 낭만적이라고 평할 수 있는 담론들이 여전히 소구력을 발휘하던 거의 마지막 시기였다. 일찌감치 취업 경쟁에 뛰어든 이들도 간간이 찾아볼 수 있었으나, 학벌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대부분의 학창 시절 친구들은 연애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다. PD, 기자, 광고 연출가, 마케터, 아나운서, 영화감독, 비평가 등등의 생산적인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꿈꾸며 대학에 입성한 학과 동기들은 ‘노는 시간’ 역시 자아실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합리화하는 면모를 종종 보였다. 사태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2008년도부터였다.

주지하다시피 <88만원 세대>는 “시장적 자유주의가 사회경제적인 층위에서 심대한 영향을 발하는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청년층의 5% 정도만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나머지 잔여적인 주체들의 경우 약 88만 원에 해당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불안정한 노동의 상황 밖으로 벗어나기 힘겨운 압박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과 더불어 의해 제기”를 시도했다(송동욱 외, 2017, 29~30쪽). 지금 시점에서 낙관적이었다고까지 평할 수 있는 비관적인 전망을 담은 이 책의 등장 이후 보란 듯이, 청년 실업률은 매년 마다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sup>2)</sup>

그 사이, 오늘날에는 곤대의 유머로 취급되는 그러나 출판 당시에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따위의 서적들이 맹위를 떨쳤고, 청년세대원들의 탈정치성을 꾸짖는 ‘20대 고객끼론’이

2) 2017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실업률은 3.8%로 0.2%포인트 올랐고,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0.2%포인트 상승해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백수 줄었을까… 가계부채 추이도 주목’, 연합뉴스, 2017년 8월 5일 자 기사 참고.

많은 기성세대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으며,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차용한 어느 대기업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필수요건들을 청년에게 부여하며 청년을 구성”(표 예인, 2017, 148쪽)하는 청년상(想)들을 반복적으로 광고에 등장시키기도 했다. 그 아래로, 문화연구를 포함한 사회학 분과는 ‘괴물’, ‘루저’, ‘잉여’, ‘열정 노동’, ‘속물’, ‘난민’, ‘헬조선’ 등등의 여러 언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세대원들을 조명한 다종다기한 담론들을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김상민 외 2013; 김애린 외, 2016; 조문영 외, 2017; 오찬호; 2013; 최태섭, 2013; 한윤형 외, 2011).

청년들이 처해 있는 악조건들과 다양한 청년 문제들을 조명하고, 탐문하는 여러 이론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생산되기 시작한 가운데, 나는 운이 좋게도(?) 2009년부터 2011년, 2년간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군역에 복무하게 되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필자는 퇴근 후, 시간적 여유를 활용하여 스펙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이나 영어 시험을 위한 공부 대신 일간지와 주간지 그리고 여러 사회과학 서적들을 비교적 꼼꼼하게 탐독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방안은 짧은 학부 생활 동안 대면하게 된 문제의식에 관련한 서적들과 당시 활발히 논의되던 문학작품 그리고 비교적 읽기 쉬운 입문 수준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 서적들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이 기간 동안 대학 입학 전까지 가장 나 자신을 옥조이던 ‘학벌 경쟁’에 대한 서적들을 찾아보거나, 잠시 가볍게 발을 담궜던 민족주의 계열의 학생 운동권을 포함한 한국 사회에 상존하고 있던 다양한 진보적인 사회 운동들에 대한 – 지금 시점에서 계보학‘적’이라고 평할 수 있는 – 탐색을 하거나,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다종다기한 문제들과 그러한 지배적 질서가 공고한 한국 사회 속에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 나 자신을 포함한 – 청년 및 청년 문제를 다룬 여러 서적을 탐독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치를 누릴 수 있었다.<sup>3)</sup> 그 기간은 필자가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했던 문제의식들을 맥락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인식론적 해방을 가볍게 맛봤던 시간이자, 여전히 대답하기 어려운 ‘이론’과 ‘실천’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학교에 복학한 2011년을 기점으로 내 주변의 다른 청년들과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서적들의 이론적인 렌즈로 스스로 문제의식을 되짚어가는 어설픈 지적 활동을 경험한 나의 삶의 궤도는 급격하게 달라졌다. 그들은 ‘자아실현’을 향하여 혹은 각자가 처한 현실적인 조건들과 타협하면서, 어학연수, 영어 시험, 공모전, 인턴 활동, 고시 공부 등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위한 스펙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던 반면, 필자는 그전까지 탐독했던 서적들이 ‘문화연구’라는 다소 느슨하고, 넓은 범위의 학문 분과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좌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지만,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론적 개념들 – ‘욕망’, ‘담론’, ‘권력’, ‘이데올로기’, ‘감정구조’, ‘구별 짓기’와 같은 – 에 대한 탐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특히 이 기간은 필자가 학부 때, 수업으로 가볍게 그러나 빈번하게 접했던 ‘(미디어) 프레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더욱 심화한 이해와 더불어 그와 비슷하면서 정치적인 관점이 더욱 깊이 배태된 ‘이데올로기’ 개념에 관심사를 둔 독서를 진행한 시기이기도 하다.

주변 청년들의 관점에서 교환가치로 전환되기 어려운 활동에 시간을 쓰는 나는, 때로는 불안한 현실을 외면하는 ‘철부지’로, 고급 취미를 향유하는 팔자 좋은 ‘중산층의 자녀’로, 정상 범주를 벗어나 과잉

3) 부연하자면, 강준만(2009)의 <입시전쟁 잔혹사>나 김상봉(2004)의 <학벌 사회> 등을 통해서 필자가 나쁘지 않은 학벌상징자본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었던 학벌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개인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공고한 계급 재생산 구조가 연루되어있는 사회, 문화, 정치적 문제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족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민족’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힘 관계를 통해서 주조되는 ‘역사적 구성물’로 진단한 베네딕트 앤더슨(1991/2003)의 <상상의 공동체>는 한국 사회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하는 성찰점을 마련해주었으며, 이에 따라서 필자가 겪었던 운동 조직 이외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개진하는 운동 조직들에 대해서 소속원들과의 친분 관계가 아닌 스스로가 정립한 합리성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더불어 ‘기-승-전-집회 참여’의 정치 참여 행태와 조직 상부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이론’과 그에 따른 ‘실천’의 단순한 관계 등등의 필자가 대면했던 기존 운동권의 관습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나에게 청년들의 일상을 문화인류학적인 방법론으로 읽어낸 엄기호(2010)의 <이것이 청춘이란 말인가>는 ‘일상의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푸코의 어깨에 오른 서동진(2009)의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를 변주한 수많은 청년 관련 연구들은 언론사 입사 준비라는 목표 아래 ‘일주일에 무조건 한 권’을 읽는 다소 강박적인 독서를 하고 있던 그 당시 필자의 모습과 극심한 스펙 경쟁에 고통스러워하는 주변 청년들의 삶의 면모를 신자유주의 체제 내 담론들이 발휘하는 주체성 효과의 결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정치화된 ‘빨갱이’로, 동시에 실질적인 정치적 행동은 취하지 않은 채, 자족적인 공부에 만족하는 ‘입진보’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직이라는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던 필자 역시 일련의 독서들로 체득한 관점을 통해 잘 모르는 그들과 더욱더 많이 아는 나를 ‘구별짓기’를 함으로써, 그들보다 우월적인 자리에 자신을 상상적으로 위치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의문에 종종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 2014년, 나는 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당시 학업을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거리를 띄우고 언어화하는 딱 그만큼 우리는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sup>4)</sup> 있다는 문화연구자 엄기호의 말에 강렬하게 공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넓은 범주의 문화연구의 이론적 성과물들이 지배적인 체제가 구현하는 권력 구조와 그것에 포섭된 나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면서, ‘나’ 혹은 주변 청년들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상들을 공동의 ‘사회구조의 문제’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문화정치학적인 담론적 실천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또 다른 핵심적인 계기는 다른 ‘대학’이라는 일종의 ‘장치’와 그 속에 상존하고 있던 선학들과의 우발적인 마주침을 통해서였다. 회고하건대, 필자는 다른 후속 문화연구 전공생들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조건 속에서 동 대학원에서 문화연구학을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이전 세대의 문화연구자들이 주로 대학 학제 외부의 비공식적 창구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것과 달리 “지금은 국내 문화연구자들에 의한 후속 문화연구자 세대의 제도적 재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는 김선기(2014, 100쪽)의 관찰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자가 우연히 입학했던 학과에는 ‘미디어 문화연구학(media and cultural studies)’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인 학문 커리큘럼 - 구체적인 강의를 나열하자면, 현대사회와 미디어, 영상 커뮤니케이션, 매체 미학, 대중문화의 이해, 영상 비평 등등 - 이 부분적으로 나마 제도화되어 있었다.

더불어, 학과에는 2명의 문화연구 전공 교수와 1명의 비판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3명의 다른 문화연구 전공자와 함께 입학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론학과에서 문화연구를 전공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주류 언론학 혹은 커뮤니케이션학에 비해 문화연구 관련 교과목들은 매우 적게 개설되는 상황”(김선기 외, 2014, 134쪽)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중심으로 코스워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대학원생 신분의 조교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하는 학교의 등록금 정책을 통해서 커다란 금전적인 부담감 없이 자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전에 훌륭한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생과의 공동 작업을 지향하는 문화연구 전공의 교수와 협업을 통해서 연구의 ‘수용자’에서 ‘생산자’로의 이행을 위한 훈련을 미리 그리고 지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sup>5)</sup> 요컨대, 필자는 ‘진로 문제’를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이 겪는 ‘경제적인 문제’, ‘연구 환경 문제’, ‘학내 민주주의’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식 생산 활동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sup>6)</sup>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학내에서의 만난 선학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적 관심사가 정립되는 시

4) 엄기호,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연구집단 카이로스의 웹진, 2012년 1월 21일 자 기고문 참고.

5) 이 시기에 필자는 “교수가 주로 구상 노동을 맡고, 석사생은 실행 노동”(김선기 외, 2014, 106쪽)을 맡는 관행적인 연구 분업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연구 주체 설정에서부터 분석을 마무리하는 일련의 연구 수행 과정을 훈련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도교수와 협업으로 진행된 첫 번째 논문은 필자의 발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료 청년연구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연구를 발전시킨 사례이다. 지도교수와의 협업의 결과물인 세 번째 논문 역시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연구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는 주로 관련 주제에 관한 사례 제시, 작성 과정 중인 글이나 연구 진행에 대한 비평 및 방향 설정, 과편적인 분석절에 대한 통합, 학술지로의 원고 투고 및 수정의 역할을 주도했다. 부연하자면, 이러한 방식은 대학원생이 교수 연구의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교수가 대학원생의 연구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석사과정생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지만, 공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한 원고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준(準)연구자 입장에서는 다소 버거울 수 있다.

6) 2014년 인문계 대학원생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허민, 최은혜(2017)에 의하면, 대학원생들이 경험하고, 스스로가 인식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4가지는 각각,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의 제한, 일반 상환대출만 가능하고 든든학자금 대출 등 대출제도의 제한,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적인 문제’, 연구실 공간 문제 내지 수업 개설이나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련된 ‘연구 환경 문제’, 불명확한 미래에 불안과 정보 제공 기구 없음에 기인하는 ‘진로 문제’, 도제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혹은 간접적으로는 간사 및 조교 문제 등의 ‘학내 민주주의 문제’이다(103-104쪽 참고).

기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주의 내지 거시적인 이론들이 제기하는 해석틀들로 포착하기 어려운 “특정한 대상과 그 대상이 처한 맥락과 환경 속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화와 경험을 통한 갈등들과 합의가 형성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에 방점”(이기형, 2011a, 293쪽)을 두고, ‘자기기술자’와 ‘심층인터뷰’ 등을 포함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방법론의 경험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그러한 방법론과 ‘사람 연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는 지도교수의 지적 실천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이기형, 2011a; 2011b). 이를 통해 이론이 “특정한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하고 국지적인 맥락의 삶의 양태와 성찰적인 통찰력의 구성”(마동훈, 1997, 184쪽)이라면, “이론과 현실 어느 한 쪽으로 환원되지 않는 양자를 접합하는 구체적인 맥락화의 발현장소”(185~186쪽)에서 (문화) 연구가 시발되어야 함을 크게 절감하였다.

동시에 ‘이론’ 연구에 지향점을 둔 문화연구 내지 비판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선배가 주도했던 스터디를 통해서 폭력적으로 감각되기까지 했던 버거운 읽기의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견디면서, 기존 문화 연구에 뿌리가 되는 정전들을 어설프게나마 훑어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당시 필자에게 일종의 지적 해방감을 안겨주었던 이론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사물들 사이의 관계로 전도된다는 점을 지적한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비판, 지리학적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발전시킨 하비의 ‘자본 순환론’, 의례를 강제하는 ‘장치’와 지배적인 ‘지식-담론’들의 질서를 통해서 주체화 과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이론적 주장을 개진한 푸코의 ‘권력론’, 경험주의를 넘어 개인이 실제 조건과 맺고 있는 상상적 관계의 재현을 통해서만 개인이 현실을 인식 내지 감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 이데올로기론과 담론 이론을 결합한 라클라우의 ‘이데올로기 담론 분석론’, ‘냉소적 태도’ 역시 탈이데올로기의 탈을 쓴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형식이라고 지적하는 지젝의 ‘이데올로기론’ 등이었다.

거시적인 관점에 초점을 둔 추상적인 고급 이론들은 기존의 지적 체계를 뒤바꾸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나의 관점에서 구조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주체의 ‘능동성’ 내지 ‘저항 가능성’을 소거시킨다는 구조(기능)주의 낙인을 받았던 이러한 이론들이야말로 주체가 어떠한 구조에, 어떻게 말려들어가는지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체의 ‘저항 가능성’과 ‘자율성’을 강하게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동이나 급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견지하고 있는 실천적인 기획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후술되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이론적 관심사 속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 입각한 문헌들을 찾고, 그러한 방법론으로 지난한 연구자료 수집을 시행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기름진 이름을 가진 서구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한국으로 수입된 이론을 읽는 와중에 그것이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유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항시적으로 부딪히기도 했다.

“설령 그 이론 틀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상 분석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견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길(2015, 85쪽)의 지적대로, 관심을 두고 탐독했던 서구 사상가의 ‘이론적 논의’와 한국 사회 내에서 맥락적으로 구성된 현상에 대한 ‘경험 연구’와의 괴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그러나 ‘정련된 이론’에 대한 필자 개인의 내밀한 지적 욕구와 필자 주변에서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낮은 문화’에 대한 관심 사이에서 균형 찾기는 어려운 작업임이 분명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업이었다.

왜냐하면, 이론이 “사회에서의 개별적인 사건 진행에 대한 가설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개되어가는 전체상과 역사에 관련된 존재판단을 구성”(Horkheimer, 1972, 196-167쪽)”이라면, ‘이론’ 밖에 있는 경험적인 관찰 자료에서부터 길러낸 ‘현실’은 순수한 ‘사실’들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인 가치가 깊이 기입된 이데올로기적인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경험적 사례 연구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과 이론들을 필요”하다는 이상길(2004, 104쪽)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과정이란 ‘이론’을 ‘도구’의 자리에, ‘현실’을 ‘대상’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동시에 이를 뒤집어, ‘현실’을 ‘도구’의 자리에, ‘이론’을 ‘대상’의 자리에 놓는 지난한 반복 작업의 다름이 아닌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행동과 인식을 외부적으로 틀 지으면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프레임’ 개념에 대한 이론적 관심사는 더욱 정교하게 발전된 관념적인 인식 틀인 동시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내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론’으로 수렴했다. ‘이데올로기론’에 호명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필자의 판단으로, ‘이데올로기론’은 ‘이해’, ‘비판’, ‘자기성찰’의 삼위일체를 도모 할 수 있는 이론이었기 때문이다.<sup>7)</sup>

따라서 문화 연구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서적과 주변 문화연구자들의 지적 세례 속에서 필자 의 문제의식은 정련된 이론(high theory)에 대한 훈고학적인 탐독과 동시에 낮은 문화(low culture)에 대한 무매개적인 접근을 넘어서 “특정한 행위나 현상을 ‘사회적인 논리’에 따른 것으로 ‘필연화’함으로 써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용의 도구”(이상길, 2015, 85쪽)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국면적 상황에 서 관찰할 수 있는 역동적이면서도 경험적인 현실, 문화 내지 감정의 결(texture)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수렴했다.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문화연구자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계기이자 조건을 거칠게 분류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세 가지는 첫째, 직접 대면하는 주변인들이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떠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식’들, 둘째, 그것들을 심화시키고, 학술적인 연구물 형태로 길러낼 수 있도록 견인한 대학 내부의 스승들과 선배들의 직/간접적인 형태의 지적 실천, 마지막으로 생존 내지 스펙 경쟁에 거리를 두고, 교환가치로 전환되기 쉽지 않은 활동 수행을 보장해준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 형태의 물질적 혹은 제도적 조건들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필자 본인에게 청년에 관련된 논문 쓰기를 추동시킨 각성과 깨달음의 계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계기는 학부 동기들과의 사석에서의 담화였다.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화에 대해 다시 질의하여 채집한 인터뷰 녹취는 다음과 같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끊긴 거야. 내가 끊은 건지, 사회가 끊은 건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가.. ‘어! 길이 보이지 않네.’ 맨봉의 1, 2개월이 조금 지나고,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내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무엇일까?’”(송동욱 외, 2017, 73쪽)

스포츠 기자를 꿈꾸던 이 청년은 끝내 언론사 입사에 실패하고, 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2년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주변의 청년들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이어가고 있던 필자에게 “왜 이렇게 됐나?” 혹은 “대안이 무엇이냐?”고 캐묻곤 했고, 나에게는 이에 대해 명료하게 대답할 만한 적당한 언어가 없었다. 이러한 질문을 몹시 곤혹스럽게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을 기준의 청년 담론들이 제시하는 청년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대다수는 단순히 신자유주의 체제에 완벽하게 포섭된 ‘자기계발 하는 주체’도, 생존 게임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족적인 면모를 보이는 ‘잉여’도, 정치의 무관심한 ‘탈정치적 청년’도, 특정한 정당이나 사회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투사’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따위의 기만적인 말을 믿는 ‘순박한 청춘’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단일한 언어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투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 주체들도 아니었던 동시에 그러한 청년상들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주체들도 아니었다. 석사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다중적인 청년들의 면모를 수집하기도 했다.

“저도 1,2학년 때 비해서, 생각이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좀 무력해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자기 계발 논리가 너무 싫고, 김난도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싫은데.. 근데 ‘정답은 김난도다..’ 하하하... 그래서 ‘구조가 잘못되었다, 시스템의 문제(다)’인 것은 알지만 그것

7) 이 세 가지 항의 관계를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충분히 정련되지 못한 언어로 가지고 있던 동시에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체감하고 있던 문제의식이었다. “‘비판’, ‘이해’, ‘자기성찰’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제대로 된 ‘비판’도 ‘이해’도 ‘자기성찰’도 할 수 없다. 만약 ‘이해’ 없이 ‘비판’만 있다면, 자의성의 함정 속에서 빠져 맹목적으로 외재적인 잣대로 타자나 세계를 일갈하면서, 비판적인 자신의 자아 속으로 침잠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비판 없이, ‘이해’만을 추구한다면, 내게 놓인 경험적 현실을 그대로 승인하면서, 기준 체제의 재생산에 일조할 것이다. 나아가 ‘자기성찰’만을 한다면, 구조적 효과를 외면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개인에게 돌리는 자족적인 관점에 빠질 수 있다. 자기성찰이 없다면 비판과 이해 속에 자신을 이미 완전한 주체로 가정하거나, 자신을 예외시하거나 자신이 이미 객관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오인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판’, ‘이해’, ‘자기성찰’을 모두 담보할 때만, 나와 나를 둘러싼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인식론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 메모장.

만 탓하고, 그냥 앉아 있는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 ‘아.. 나 진짜 루저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시간에 그냥 스펙 쌓고, 계속 인턴 넣어가지고, 뭐 좋은데 인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데 취업을 해야지.. 내가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러고 있다고 뭐가 달라질까?”(송동욱, 2016, 93쪽)

이들 대부분은 부모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비교적 충실히 학창시절을 보내고 ‘인서울’이라는 학벌 자본을 거머쥔 후, ‘정상 생애주기’<sup>8)</sup>를 크게 참조하여 삶의 서사를 기획하고 있던 이른바, 세대 내 주류 층에 가까운 이들이었다. 여기서 필자의 눈에 띈 것은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팽배해진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상환,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은 집값”(방희경·유수미, 2015, 48쪽) 등의 열악한 사회적 조건을 피부로 체감하면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강렬하게 표출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대면한 실패의 원인을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개인적인 차원의 해결책만을 모색하는 이들의 다소 분열적인 양상이었다.

처음 이러한 발화를 접했을 때, 필자에게 이들은 지젝(1989/2001)이 말하는 ‘냉소적 주체’가 겹쳐 보였고,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론’으로 청년 주체들의 다면적인 면모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 당시 필자가 대면한 것은 이들을 냉소적인 주체로 파악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서 냉소하는 필자 자신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 “이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필자에게 되돌아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문제의식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대 내 주류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이 대면하는 자기 재생산 위기는 곧 한국 사회(구성체) 재생산의 위기를 증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자신의 서사와의 충돌이 주관적인 차원에서 강렬하게 경험되는 ‘분열’ 장면을 통해서 주체성의 굴절과 재구성 단면을 치밀하게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질적인 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화의 불/가능성의 조건을 탐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년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 3. 청년에 관한 경험 연구의 수행 과정의 기억 복원

#### (1) 청년 연구의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의 조건 탐색하기: 주체 내부의 ‘분열’과 ‘청년’ 범주

필자가 연구를 시작할 당시, ‘자기계발 하는 주체’ 개념을 변수적으로 차용하는 연구의 흐름이 청년 연구의 주요한 계열로 자리 잡고 있었다(서동진, 2009; 김성윤, 2010; 고은강, 2011; 오찬호 2013). 따라서 필자는 대학원 수업에서부터 많은 학술장에서 ‘자기계발 하는 주체’ 이후의 더욱 발전적인 이론적 틀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분석의 결론이 ‘자기계발 하는 주체’를 주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만 수렴했을 때, 그 한계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동춘(2006)이 지적했듯이,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시공간적인 조건들을 누락한 채, 다종다기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의 문제로만 지목하는 분석은 “신자유주의를 마치 악의 원천인양 비판”(115쪽)하는 함정에 빠져,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체제’ 내지 ‘자본주의’와 같은 복잡하고, 견고한 구조와 그 구조가 일방적으로 구성할 것으로 가정하는 ‘자기계발 하는 주체’ 혹은 ‘냉소적 주체’ 같은 중심적인 개념 틀을 차용한 분석들은 거시적인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주체의 형상을 딱딱하게 마름질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주체들의 다면적인 면모나 양상을 소거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다. 나아가서 주어진 구조의 공고함에만 주목하면서, 그것을 자연적인 객체로 파악하는 분석들은 연구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러한 구조가 한계지어지고, 새롭게 구성되는 양상이나 방식을 탐구할 수 있기는커녕 그것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기계발 하는 주체’를 다룬 청년 연구의 계열과 함께 미디어 문화연구 진영에서 개진된 절대 적지

8) ‘정상 생애주기’란 “‘대학 졸업-정규직 취업-결혼-출산-대출을 통한 자가 주택 구매-은퇴’와 같은 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규범’으로 제시되는 지배적인 동시에 선호되는 생애사적인 특성을 발현하는 집합적인 서사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송동욱 외, 2017, 31쪽 참고).

않은 청년 연구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미디어 수용 양상에 대해 심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이기형, 2011a; 이동연, 2004; 이동후, 2009). 이러한 계열의 연구들은 주로 청년세대원들의 기술 활용 역량에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집합적인 ‘스타일의 정치’나 ‘상징적인 저항성’의 표출에 주목했다. 그러나 “청년들이 발현하는 ‘능동성’이나 기성세대 집단과의 ‘이질성’과 차별적인 문화적인 역량”(송동욱 외, 2017, 33쪽)에 주목한 청년 연구들 역시 일부 청년 주체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특수한 ‘능동성’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필자는 주체의 ‘능동성’과 ‘수동성’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이 틀에 따라, 손쉽게 청년 주체의 특성을 읽어내는 분석의 관점이 빠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측 가능한 결론을 반복”(Grossberg, 1997)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들은 연구자가 이미 완결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 틀에 특정한 현실이나 현상을 끼워 맞춤으로써, 연구 대상을 물화시킬 수 위험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한계는 아무리 많은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이론 틀의 적합성을 재확인하는데 그치는 해석학적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명한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앞선 장의 인용문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청년세대원들의 주체성을 탐구하는 ‘자기계발 하는 주체’ 개념을 변수한 연구들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력한 주체화 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의 성과를 쉽사리 무시할 수 없었다. 비록 필자는 이질적이거나 체제 이탈/비판적인 청년 주체들의 비순응적인 면모를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종종 관찰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생존’을 위해 자신을 ‘1인 기업가’로 부단히 대상화하면서 자신의 경험, 나아가 삶 전체를 역량화하고자하는 끈질긴 면모를 더욱더 빈번히 발견했기 때문이다(고봉준, 2016; 고은강, 2011; 이기형 외, 2014). 이러한 일련의 경계점들을 인식하는 가운데, 연구자가 주목한 주체의 ‘분열’이라는 탐구주제가 기존의 청년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의 필연적인 관계성을 주장한 아도르노 - 그의 용어로는 ‘주체와 객체의 상호 규정/결정적인 관계’ - 의 말대로 “주체가 가장 주체적으로 경험한 것, 즉 주체의 표현은 객관세계와 매개된 것”(1966/1999, 73쪽).”이라면, 청년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의 대면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드러내는 ‘분열’의 양상은 거시적인 구조가 발휘하는 효과의 양상을 미시적 차원에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구조의 효과이자 특정한 주체화의 방향을 굴절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계기로서 ‘분열’을 주제 삼아 주체 내부의 모순을 파악함으로써, ‘구조’와 ‘주체’의 관계를 예단하거나, 고정하지 않고, 청년 주체의 변화 가능성의 발현 내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재)생산되는 면모를 탐색하는 것에 분석적 초점을 두게 되었다.<sup>9)</sup>

지금 시점에서는 이데올로기론에 대해 깊이 투사된 이론적 관심사로 인해 ‘분열’에 관심을 가졌는지, ‘분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데올로기론을 차용하게 되었는지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삶의 모순으로부터 설명”(이영주, 외, 75쪽)되어야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주체는 스스로의 모순, 불일치, 탈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봉합함으로써 장치들의 강제적 인과 작용의 혼적들을 지우고, 자신의 동일성을 하나의 영원한 ‘자명한 진리’로 창조”(최원, 2016, 245쪽)한다면, 분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년들 내부에서 공명, 갈등, 파열 등을 일으키며 작동하는 여러 이데올로기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단면을 탐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청년들의 ‘자기분열’을 주제로 경험 연구를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자기소개서’라는 매개체를,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삼포 세대를 비롯한 청년상이나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미디어 담론들을 차용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구직의 목적 지향성을 강하게 배태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

9)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찾아낸 청년 주체의 분열을 다룬 학술적 자료는 김승수(2010)의 논문이 거의 유일했다. 부연하자면, 그의 연구는 ‘개신교도’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구성하는 ‘합리적인 주체’라는 중첩 내지 합치되기도 하지만, 내적인 갈등을 추동하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 분열과 봉합의 구체적인 양상을 다루었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서 학술적 유효성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는 선구적인 작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두 가지 정체성에만 주목하여 주체의 분열과 봉합의 양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종다기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주체의 다면성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청년층의 발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복잡한 정체성의 경합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로 사물화(reification)시키는 낯선 자신과 대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10)</sup>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에서 ‘삼포 세대’와 ‘헬조선’을 다른 미디어 담론을 매개체로 차용한 이유는 해당 담론들이 ‘정상 생애주기’의 궤도를 매끄럽게 따를 수 없는 청년들의 재생산 위기 내지 자기 서사의 불가능성을 직설적으로 제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연구를 시작하려 하자마자 동질적인 ‘청년 범주’라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자면, 대표적으로 신광영(2009)은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탐구하기 위해서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실행하여,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의 연구는 1998년부터 2007년 동안, 약 10년간 세대 간의 불평등이 아닌 세대 내의 불평등이 증가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러한 분석점이 지시하는 것은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다른 세대의 불평등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대 간의 불평등’을 문제시하면서,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재현하는 기준 세대론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이 연구는 왜 하필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sup>11)</sup>

더불어, 미디어 문화연구의 진영에 속한 연구자인 김선기(2014, 2016) 역시 이질적인 ‘청년층’과 청년들의 다양한 ‘속성들’을 동질화시키는 담론 그리고 ‘청년세대’를 타자화시키는 담론의 현실 구성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이러한 논의들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20대 개빡기론’이나 청년들을 미성숙한/비이성적인 주체로 재현하는 보수 미디어 담론에 내재된 ‘계도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체제의 ‘피해자’로 재현하면서, 문제의 책임을 ‘기성세대’로 돌리는 ‘사과의 태도’ 역시 ‘청년’과 ‘사회’ -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년세대’와 지배적인 사회 질서를 주조하고, 유지하는 지배 계층으로서 ‘기성세대’ - 간의 허구적인 대립을 강화한다(김선기, 2016). 나아가서 이러한 담론의 효과는 얹히고 설킨 한국 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단순하게 인격화된 세대 간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계급 문제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서동진, 2015).

이에 따라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 범주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을 통해서 다종다기한 청년 세대 담론을 접하고, 습득한 필자 역시 청년세대원들에 대해 예단되고, 편향된 관점에 함몰된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 청년담론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개입적인 관점을 강화시키는데 그치는 제한적인 결론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할 위험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청년 연구 내지 청년 범주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혜진(2016, 51쪽)의 말대로 “노동유연화를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에서 저임금·저소득을 감내하며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것은 압도적으로 이삼십대 청년층”이며, “계급 갈등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대와 성별을 가장 ‘약한 고리’로 선택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면, ‘청년 문제’는 단순히 분석을 포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심화된 관점에서 더 심층적으로 진단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청년 당사자들의 발화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분열에 초점을 둔 개입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청년 담론 논의를 심화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 (2) 연구 집필 과정에 대한 자전적인 복기: 이데올로기론의 공백에 따른 연구의 좌초

10) 부연하자면, 필자는 청년들이 타율적인 성찰을 강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이 자신과 사회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조건들을 재인식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로 작동하면서, 기존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주체성 구성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런데도,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자기분열을 직접 경험한 청년 대상자들은 지젝(1989/2001, 63쪽)이 지적한 대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바를 잘 알지만, 여전히 그것을 행”하는 냉소적 주체의 모습과 가까워 보였다. 따라서 그 연구를 통해서 청년 주체의 ‘분열’을 탐색하고자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의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중요한 개념 틀로 차용한 여러 청년 연구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적 논의로 마무리되었다. 실제로, 이 연구는 학술지 게재 심사에서 그러한 심사평으로 받고, 게재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필자는 ‘자기소개서’가 주체화의 방향성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매개물로 작동할 수 있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강제로 반성하게 만드는 특이한 기제를 발현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더욱 심화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1) 2015년에 열린 문화연구캠프에서 논문의 초안을 발표한 필자는 한 토론자에게 왜 하필 성인이나 ‘기성세대’의 분열이 아닌 ‘청년’의 분열로 연구 대상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기도 했다.

이 절에서는 연구자가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인 두 번째 논문의 기획에서부터 세 번째 논문의 작성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들과 더불어, 연구의 선회 과정을 중심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의 기획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으로 자기 자신을 청년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읽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사학위논문 집필을 시작하자마자, 연구자가 대면한 것은 ‘이론’과 ‘현실’ 사이의, 더 정확히 ‘이데올로기 이론’과 ‘경험 연구’ 사이의 공백이었다. 요컨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이 공백을 꿰매고자하는 지난한 시도의 다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백은 기존 문화연구 이론 흐름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이상길(2004)에 따르면, 1960년대 언어학,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추동된 구조주의적 전환으로 인해 ‘이데올로기론’은 문화연구의 대부인 스튜어트 홀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주요한 이론 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론을 차용하여 미디어 텍스트의 재현이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재생산 효과에 주목했던 연구들은, 주체들의 수동성을 전제를 한다는 이유로 점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다. 이에 따라 문화연구 내부에서는 “미디어 문화 산물의 수용, 이용, 소비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행위자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상길, 2004, 100쪽) 화행론적 전환에 입각한 민족지학적 방법론과 관점을 견지한 연구들이 대거 수행되었다. 따라서 다시금 ‘이데올로기론’이라는 낡은 패를 꺼내든 필자는 문화연구 내에서 진행된 기존의 학문적 흐름의 역행자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한 문화연구의 분과에서는 이데올로기 이론을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지금 까지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필자는 알튀세르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이데올로기론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다수의 연구들을 접할 수 있었다(강내희, 2015; 주은우, 2013; 최원,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국 학계 내부에서 그러한 이론 틀을 중심적으로 차용하여,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주체의 양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필자의 이론적 전선은 ‘구조기능주의’의 낙인으로부터 이데올로기론을 구출하는 것<sup>12)</sup>과 경험분석에 맞게 이데올로기론의 재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틀지어졌다.<sup>13)</sup> 특히 후자에 대한 서술을 시도하면서, 지도 교수와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포함한 다른 연구자들의 지침을 통해서 논문을 개선시키는 과정은 필자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론 틀과 경험분석 간의 거대한 괴리를 점점 더 명료하게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완성한 논문에서는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내에서 실현되는 ‘의례’와 ‘담론구성체의 배치’를 통해서 주조되는 주체의 ‘욕망’이 발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출된다는 주체화 논리를 다소 불안정하게나마 정립했고, 연구자가 설정한 ‘(이상적인)자아’와 ‘(이상적인) 현실’이라는 도식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해독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분석이 진행되었다.

고백하자면, 논문 구상 초기, 연구자는 주체들의 분열 양상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현상의 복잡다단한 맥락성을 풍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디어의 재현 효과’ 그리고 거시적인 ‘제도 분석’을 결합한 일종의 국면분석을 지향하는 연구를 기

12) 이 점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비록 경험 연구 분석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문제의식을 비교적 최근에 대면하고 풀어낸 배세진(2015)의 석사학위논문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필자가 논문을 집필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훨씬 명료하게 정리한 자료들을 뒤늦게 만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이슨 바커(2016)의 논문과 백승우(2017)의 서적이 있다.

13) 더불어, 경험 분석에 맞게 ‘계급’을 재개념화하고자 하는 기획도 있었지만,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비교적 일찍 포기했다. 다음의 기록은 당시 이를 고민했던 혼적의 일부이다. “첫째. 계급은 계층이 아니라는 것. 계급은 단순히 소득 수준에 따른 계단에서의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계급적 차이라는 것은 계급적 집단의 동질한 속성 간의 차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 관계를 지시한다는 것. 둘째. 계급은 계급투쟁 이후에만 존재한다는 것. 즉 계급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따라서 계급이란 계급 투쟁의 효과. 셋째, 알튀세르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실제 조건과 자기 자신의 상상적 재현인데, 여기서 진태원은 실제 조건을 계급 구조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론 자체가 계급 구조와 주체가 상상하는 정치 구조와의 간극을 드러내는 이론이라는 것. 넷째, 계급의식은 특정한 계급 구조에 대하는 태도라는 것. 따라서 계급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급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섯째. 계급은 어떠한 상징적 매개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여섯째. 주체란 언제나 자본주의의 객체라는 것. 주체란 객체의 산물이기에 특정한 방식으로 객체들을 주체화한 것. 따라서 주체적인 것과 객체적인 것의 분리야 말로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라는 것. 그렇다면/어쨌던 계급(투쟁)은 착취적 사회 관계에 대해 취하는 거리/방식을 통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개인 메모장.

획했다. 그러나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여러 난점들로 말미암아 분석 단위를 계속 좁혀날 수 밖에 없었으며, 연구 기획의 시발점이자 일부분인 주체의 ‘분열’에 대한 양상 분석 역시 주로 지도교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수번의 대폭 재수정을 거쳐야만했다.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되겠지만, 계획보다 많은 26명이라는 많은 인터뷰이의 녹취록을 예상보다 기한이 훨씬 지난 2016년 초나 되어서 마무리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그것을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론적 논의에 대한 장에 대한 틀의 방향이 어느 정도 구축된 가운데, 급하게 작성한 분석장의 초고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연구자가 설정한 주제별로 초과된 인원의 인터뷰이들의 발화를 묶은 파편적인 글뭉치에 불과했다.

논문 심사가 다가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도교수의 지침 아래 필자가 기존의 연구 기획에서 다루고자 했던 ‘삼포세대’ 담론 이외에도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현상으로서, ‘자조’, ‘우울’, ‘체념’, ‘분노’, ‘불만’ 등의 청년당사자들의 다기한 감정 내지 정동의 표출을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헬조선’ 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헬조선을 다룬 미디어 담론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을 분석에 추가함으로써 필자가 정립한 이데올로기론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인터뷰이들의 감정의 영역으로 분석의 초점을 이동시켰다.<sup>14)</sup> 이에 따라, 필자는 애초에 기획했던 미디어 담론과 제도에 대한 종적인 분석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논문의 행로는 인터뷰이들에 대한 녹취록을 더욱 풍성하게 진단하는 방향으로선회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회 역시 위태로운 동요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이들의 발화와 담론구성체 간의 정합적인 논의를 개진하기 위해서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 분석(CDA)’에 대한 절을 추가적으로 삽입했다가 지도 교수의 판단 아래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 이유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연구 범위가 특정한 미디어 텍스트의 효과와 더불어 그러한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했기에 청년들이 미디어 담론을 수용하는 양상을 통해서 특정한 사회 재생산 양상까지를 파악하고자 했던 필자의 연구 의도와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발휘하는 재현 효과를 중심으로 발전된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으로는 헬조선 현상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러나 연구자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청년들의 복잡한 감정의 결을 읽기도, 다중적인 분열의 양상을 진단하기도 어려웠다.<sup>15)</sup>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괴롭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데올로기 개념과 경험 연구와의 괴리였다. 부연하자면, 지도교수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은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적인 이론 틀로 설정한 필자의 경험 연구 기획에 대해서 예단하여 반대하기는커녕 논문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효한 지침들을 주었다.<sup>1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이데올로기론’과 ‘경험 분석’ 사이의 심대한 괴리를 계속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었으며, 예상치 못한 이론적 난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요컨대, 연구자가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효과들이 결집되는 주체의 차원에서 그들의 이데올

14) 이에 따라, 필자는 급하게 레이몬드 윌리암스의 감정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필자가 기존의 작성한 이데올로기론의 논의 속에서 충분히 정합성을 가지고 종합되며 보다는 감정구조와 정신 분석학의 연계성을 풀어낸 윤상호(2016)의 논의를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다소 위태롭게 정리되었다. 운이 좋게도,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환상’의 영역과 필자가 설정한 ‘이상적인 현실’의 영역이 거의 유사한 영역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욕망’, ‘감정’,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의 이론적 논의의 빈틈을 부분적으로나마 메울 수 있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을 문화연구학에서 개진된 기준의 다종다기한 이론적 개념들과 대조, 종합하면서 재구성하는 동시에 그것의 유효성을 탐색한 해당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읽으면서, 필자의 한계를 더욱 크게 체감되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종체적인 이론 틀의 정합적인 재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나, 필자가 지향했던 경험분석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숙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5) 이에 대해 박사과정의 한 선배는 필자에게 이데올로기론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정립된 ‘비판적 담론 분석’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주었다. 그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과 푸코의 담론이론을 종합했던 폐쇄의 논의를 기반하여, 이데올로기와 담론구성체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기를 추천했지만, 결론적으로 급박한 마감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이에 대해 정리하지 못한 체 논문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16) 특히 지도교수는 주체의 감정 내지 충동에 대한 분석의 미진함을 지적하면서도, 주체의 분열을 탐구할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마무리된 레퍼런스를 추천해주었다. 해당 자료는 박해광(2003)의 <계급, 문화, 언어>이다. 이 서적은 비록 활자화된 노동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라는 점에서 필자가 차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데올로기론에 입각한 주체의 ‘분열’이 남겨진 긴요한 분석과제임을 밝히면서, 결론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서적들은 필자의 연구가 아무런 계보가 없는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주었고,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러한 참고는 주요하게 작동했다고 평할 수 있다.

로기를 분석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와 활자나 영상의 형태로 구현되는 상징적 제도물들이 발휘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나 이론 자체에 대한 비평 및 재구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이데올로기 연구 사이의 공백은 필자의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연구가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주체의 욕망 발현을 선차적으로 가정하고, 욕망의 기대, 포기, 체념, 갈등, 굴절 등등을 통해서 표출되는 감정의 영역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데올로기’와 ‘욕망’ 간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한 심사위원의 근본적인 지적에 대면하고 연구는 부유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욕망’과 ‘이데올로기’ 간의 복잡한 이론적 논의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기존의 이론 틀에 급하고 어설프게 읽은 라캉의 ‘욕망’ 논의를 외삽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필자는 경험 분석을 위해 자의적이고, 다소 단순하게 구성한 4가지 영역의 분석단위 -‘자아’, ‘이상적인 자아’, ‘현실’, ‘이상적인 현실’-의 도식성이 맥락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받았다. 부연하자면, 필자는 도식에 따라 귀납법적으로 몇 가지 유형들을 추출하고, 몇몇 유형들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는데, 이에 따라 통시적인 차원에서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석점들이나 그들 사이의 차이가 소거되기 일쑤였다.<sup>17)</sup> 한편 다른 심사자는 연구자의 이데올로기론의 개념, 구체적으로 주체의 상상적 관계에 대한 정의의 애매성과 그것의 담론 수용과 주체성 형성 간의 미진한 연결고리에 대해 지적을 했고, 이에 따라 필자는 다시 이데올로기 개념에 관해서 재서술해야만 했다.<sup>18)</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이론 틀의 논의를 더욱 정교하게 서술하는 것과 26명이라는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녹취록을 풀고, 그것들을 읽고, 분석하는 두 가지 버거운 과업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이, 논문은 점점 난파당하고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이 해당 학기에 통과되지 못할 위기를 겪었고, 논문의 완결성을 위해서 졸업 연기를 위태롭게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선학들이나 동료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연구자 각각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할 수 없었던 한편,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심사자들의 타당한 지적을 모두 종합하지 못한 채, 산발적인 뚫린 빈 구멍들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겨우내 완성했다. 결국, 당시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제한적인 이론적 자원을 통해서 걸려진 흥미로운 관찰점들은 종이 더미 속에 잠들었어야만 했다.

이러한 마무리 속에서 필자는 개인 역량의 부족으로 인터뷰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점이 자못 아쉬웠다. 이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이 마무리된 지 반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기존에 수집한 연구자료들을 바탕으로 세 번째 논문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다. 앞서 서술했듯이,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의 게재를 목표로 한 논문으로 대폭 수정하는 과정은 지도교수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뤄졌다.

세 번째 논문에서는 필자 개인의 이론적 관심사가 깊이 투사된 ‘이데올로기론’ 대신 레이먼드 월리엄스(1978/2009)의 ‘감정구조’와 김홍중(2015)이 제기한 청년들의 ‘생존주의’에 입각하여, 인터뷰자료 재분석을 실행했다. 개념 틀을 전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필자가 여전히 경험 분석에 맞게 ‘이데올로기론’을 정합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sup>19)</sup>, 다른 하나는 ‘헬조선’이라는 명명법이 나올

17) 또한, 필자는 석사 논문 심사 과정에서 “논문 서술자의 관점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글 전체는 당시 석사 논문에 추가할 수 없었던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도,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던 타당한 지적에 대해 늦게나마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보충해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18) 더불어 심사자는 ‘여성’ 청년들에 대한 분석점에 대해서, 그것이 여성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타당한 의견을 개진했다. 88만원 세대론 이후 등장한 청년 세대론에 대해서 ‘여성’에 초점을 둔 이론적 논의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백은경, 2015; 오혜진 외, 2016).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오혜진(2016, 51쪽)은 “‘88만원 세대’나 ‘N포 세대’ 같은 세대 호명이 이성애적 규범과 ‘정상 가족’ 생애주기 모델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현재 세대와 청년 담론에서 ‘청년 세대’는 ‘남성’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세대론이 좀 더 급진적인 정치적 주체화의 기획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를 다양한 얼굴로 상상”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명하여, 폐미니즘에 관심을 두고 있던 여성 대상자들이 불안정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이에 대해 공적인 해결책을 도모하지 못한 채, ‘결혼’이라는 사적인 해결책을 희구하게 되는 양상을 ‘조직적 방어화’ 개념에 기반하여, 여성 청년 대상자들 사이에서 성적 불평등이 발현되는 양상으로서 포착하고자 했다. 지금 시점에서 평하자면, 기존 청년 연구의 공백으로 지적되는 여성 범주를 어떻게든 다ansom으로써 보완해야겠다는 강박 속에서 충분히 정련된 진단을 도모하지 못했던 것 같다.

19)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데올로기론에 있어서 ‘감정의 영역’은 여전히 불모지이다. 정정훈(2017, 428쪽) 역시

만큼 청년들에게 파국적으로까지 감각되는 한국 사회의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아 전체를 자본으로 전환”(김홍중, 2016, 360쪽)하도록 압박받는 ‘생존주의’의 서사를 넓게 공유하는 청년 주체들이 분출하는 감정의 결(texture)을 읽는 데보다 초점을 두고자 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팽배한 한국사회의 맥락에 착종하여, 청년 세대의 ‘생존주의’를 중심으로 이론 틀을 구성한 김홍중의 논의는 자신 개인의 노력으로 정상 생애주기의 과업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간파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면모를 분석하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문영(2017)의 연구가 지적하듯이, 생존의 어려움을 깊이 간파한 청년들의 대안 모색이 ‘탈조선’으로 예시되는 탈존의 형태로 발현되는 양상이 종종 관찰되는 가운데, 김홍중이 발전시킨 ‘생존주의’ 개념을 중심축으로 다양하게 굴절이나 분화되는 ‘공존주의’, ‘독존주의’, ‘탈존주의’의 개념들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틀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복잡다단하고, 다중적인 청년들의 주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더불어, 우울, 자조, 자책, 분노,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표출을 큰 특징으로 갖는 ‘헬조선’ 현상에 대한 진단을 개진하기 위해서 ‘생각과 대비되는 감정이 아니라 느껴진 생각이고 생각된 느낌’이라는 감정구조 개념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요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20)</sup>

그러나 세 번째 논문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논문에서 충분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개진하지 못했던 정치적 열망과 그 속에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를 대거 삭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세대원들의 정치성 발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학술지에 투고를 시도한 3번째 논문은 재심사 판정을 받게 되었다. 필자와 지도교수는 청년들의 정치상이나 사회상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점을 개진하는 연구가 드물다는 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촛불광장의 개화 형태로 분출되었던 집단적인 촛불 행동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미디어에 의해 청년들이 집합적인 행동의 핵심적인 주체로 재현되었다는 점 그리고 2년 동안 연구자가 인터뷰한 청년 주체들의 정치성이 변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3번째 논문에서는 2번째 논문을 집필한 이후에 발발한 촛불 정국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을 추가로 분석하기를 결정했다.

3번째 논문이 완료된 지금 시점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필자가 처음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던 감정 영역에 대한 분석을 추가할 수 있었고, 생존주의의 서사를 체화한 청년 주체들이 실패를 대면함에 따라 겪을 수밖에 없는 분열상과 미약한 비순응의 면모,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정치상을 촛불집회 매개로 더욱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일련 과정 중에 ‘이데올로기론’을 통한 경험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알지도 못했을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독서를 계속 진행하기도 했다.

부연하자면, 독서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과 더불어,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해석자들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결론 절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명쾌한 이론적 타개책을 찾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여전히 ‘이데올로기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관한 서술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연구 수행의 세부 과정인 ‘인터뷰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대면한 난점들에 대해서 복기하고자 한다.

---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정서의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이데올로기론에서 충분히 탐색 되지 못한 정동이나 감정에 대한 이론적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구체적인 현실 분석을 위해서 감각, 정동, 감정(구조), 언어, 욕망, 물질 등 등의 개념을 종합하는 이론적 정교화 작업이 요청되는 바이다.

20) 부연하자면, 이 과정에서 필자는 ‘상부구조’와 ‘토대’의 관계 혹은 ‘물질’과 ‘문화’와의 관계를 나름대로 개념화하고 있는 ‘감정구조’를 더욱 심화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주관과 객관, 관념론과 유물론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시도”(강태완, 2000, 3쪽)로서 더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임슨(1990/2000, 127쪽)은 “하부구조/상부구조의 관념을 독자적인 이론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한 문제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그 해결책은 항상 개인적이고 특수한 이해방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때 모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한다. 필자 역시 ‘문화연구’와 ‘마르크스주의’ 각각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쟁점이자 나름에 대답을 내놓고 있는 공통질문인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경험적인 현실 속에서 다시 캐묻고 종합하는 이론적 작업이야말로 향후 (마르크스주의) 문화연구의 학술적 진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인터뷰자료 수집 과정에서 겪은 난점들에 대한 자전적인 복기

이 절에서는 총 26명의 청년과 만나서, 그들의 발화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난점에 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필자는 연구 대상을 연구자 주변의 청년들을 대상을 좁혔다. 왜냐하면, 이미 연구대상자들과 라포(rapport)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진솔한 인터뷰자료를 채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만약 “연구대상들의 삶에 대해 참여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지리적 공간”(채석진, 2016, 56쪽)을 필자의 일상으로 설정한다면,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민속지학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속지학‘적’ 연구를 추구하면서, 더욱 깊이 있게 그들의 삶을 읽어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필자 주변 청년들의 일상 속에 내재되어있는 문화 정치경제적인 힘 관계를 읽어내면서 그것을 하나의 현장으로 탈바꿈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와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발이나 견인하면서, 일상을 지속적인 정치적 구성력이 발휘되는 수행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대상자들이 수도권 대학 내지 대학원이라는 ‘상징자본’을 가진 청년이라는 제한된 범주의 연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에 집중하기로 했다.<sup>21)</sup> 왜냐하면 ‘나이’, ‘현재 지위’, ‘학부 출신 대학’, ‘결혼 여부’, ‘성별’, ‘가족의 계층’, ‘희망 업종’ 등등의 대상자들의 차이와 동일성을 동시에 드러낸다면, 유효한 분석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지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하고, 청년 세대에 내부의 ‘여성’에 대한 논의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의 자녀-인서울학벌-헤테로-남성’으로서 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탐색을 있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기대를 품고, 청년당사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자기 서사와 함께 그것에서 발현되는 감정을 해독하기 위해서 개별 심층 인터뷰와 표적그룹 심층 면접(focus group analysis)이라는 질적인 연구 방법을 선택했다.<sup>22)</sup> 그러나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기대는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절에서는 필자의 기대와 그 어긋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인터뷰어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부단히 그들의 ‘분열’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들 견지하고 있는 서사의 한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을 개진했지만, 애초에 관찰하고자 했던 분열적인 면모는 일부 대상자들 사이에서만 드러났다. 또한, 무엇보다 필자는 인터뷰이들이 대부분은 어느 정도 청년 세대 미디어 담론을 지속해서, 그리고 깊이 있게 수용하고 있을 것을 가정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비록 미디어 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하고,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진중한 답변을 주었던 대상자도 있었던 반면, 청년 세대 담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대상자들도 있었다.<sup>23)</sup> 때에 따라 인터뷰의 진행이 연구와는 상관없는 자신 처지에 대한 하소연으로 흘러가서, 인터뷰를 중단시킨 때도 있었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하소연 자체에 대해 치밀하게 캐묻고, 이론 틀과 정합적으로 분석한 능력이 없는 필자가 역량 부족에 기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21) 그러나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 ‘중산층 – 인서울대학 – 인서울대학원’이라는 한국 사회의 주류적 도정에서 필자가 만난 이들의 발화만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과 모종의 부채감을 지우지 못한 채, 연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22)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3명에서 4명 정도의 표적그룹 심층 면접으로 진행했지만, 급작스러운 약속 취소나, 선약으로 특정 인터뷰가 자리를 떠야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총 26명의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라포가 이미 형성된 대상자와의 인터뷰인 만큼, 진행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평소에 필자의 작업에 관심이 많은 대상자는 열성적으로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인터뷰이는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종의 ‘해소감’을 체감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23) 특히 이러한 성향의 두 대상자가 한 그룹에 속했을 경우, 담화의 주도권은 거의 한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고, 자신이 잘 모른다고 판단하는 대상자들은 비교적 말을 줄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필자가 해당 담론을 간단히 설명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대개 짧았으며, 그러한 설명 시간의 소요로 충분한 인터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채 인터뷰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깊은 우울감과 어두운 침묵을 표현하는 인터뷰이의 경우,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둘러 진행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청년세대원의 어려움을 다루는 주제라는 점에서 대상자들은 종종 자책이나 우울감을 표출하기도 했으며, 대개 ‘실현 가능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답이 없다’라는 자조적인 재확인으로 귀결되곤 했다.<sup>24)</sup>

또한, 필자는 여성 대상자들의 이질적이고 독특한 발화를 기대하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지만,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육아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차이’ 정도의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답변을 받았으며, 실제로 적극적으로 비혼을 지향하는 대상자는 없었다. 이는 필자와 대상자 간의 라포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았거나 필자가 섭외한 주변의 인터뷰이들이 일정한 동질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미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했지만, 녹음기가 꺼진 이후, 분석할만한 대답을 하는 인터뷰이도 있었다는 점에서 인터뷰이가 지배적인 정상적인 규범에 기반하여 연출된 발화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sup>25)</sup>

이와 더불어, 연구 기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기에 기존에 정립한 분석 틀로 미처 진단해낼 수 없었던 분석점들이 -‘정규직 취업자의 이직에 대한 열망’, ‘실패에 대한 정신승리적인 자기방어 기제’, ‘비정규직 취업자와 정규직 취업자 사이의 차이’,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좌절감’, ‘비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던 학생들의 미래 기획’ 등등 - 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필자는 이에 관해 비교적 명료한 분석점을 제시해주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분석을 포기하기도 했다. 반면,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연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석을 개진할만한 지점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들의 미디어 담론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2차시 인터뷰는 총 6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기존 인터뷰에서 선정하여, 2016년 6월, 한 달간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미디어 수용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이 없다는 심사평을 들은 필자는 지도교수의 지침 아래 이전 인터뷰 때 빈번하게 회자하였던 보수와 진보 일간지의 기사 5편을 선정하여, 기존 대상자들 사이에서 추가로 선발한 6명의 인터뷰이에게 읽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수집했다. 인터뷰이는 특정한 미디어 텍스트 중심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존 인터뷰에서보다 더욱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물론 기존 인터뷰에서 비교적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한 인터뷰이들을 중점적으로 섭외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인터뷰이들이 텍스트를 매개로 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이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드러났다. 지금 시점에서 평하자면, 1차 인터뷰의 실패는 청년당사자인 인터뷰이가 충분한 생각의 곱씹음이나 숙고 없이 자신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털어놓을 것을 기대했던 필자의 오판에 기인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진행한 3차 인터뷰는 2017년 5월 중순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다. 기존의 인터뷰 대상자 중 6명을 추가적으로 선발하여 수행한 3차 인터뷰에서는 ‘적폐청산’과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분출상에 대한 청년 대상자들의 반응을 주제로 삼아 그들의 정치성과 관련된 질의를 주고, 대답을 수집했다. 이전 인터뷰보다 2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대상자들의 견해 변화는 크게 관찰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인터뷰이는 연구자가 이미 예상되는 답변을 종종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청년 정치인’, ‘정당제도’, ‘각종 정치적 사안’ 등으로 질문 주제를 확장했으나, 필자가 관찰하기를 희망했던 청년들의 체재 비순응적인 면모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24) 인터뷰는 종종 주제 밖으로 이탈하기도 했고, 이에 따라 말과 말들은 부유하기도 했다. 특히 인터뷰 도중, 서로 친분 관계가 깊은 그룹 대상자들은 종종 인터뷰와 관계없는 사담을 나누기도 했다. 진행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고 나서는 대상자들의 집중력도 점점 떨어져서, 더 깊은 질문을 하기 힘들기도 했다. 애초에 기획했던 것보다 많은 26명의 대상자를 인터뷰한 이유 중 하나는 필자가 판단하기에 충분히 분석점을 개진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 추가적인 인터뷰를 계속했던 필자의 역량 부족에 있기도 하다.

25) 특히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진로 모색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한 인터뷰이의 대답은 논문에 담아질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필자와 대상자 사이가 라포를 과대평가했을 수 있다는 것을 깊게 절감하기도 했다. 또한,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적인 발화를 아끼는 경우 자체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지만, 연구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더불어, 대상자들이 평소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부 동기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필자의 연구 의도에 맞춰서 답변했을 가능성도 컸던 것 같다. 일례로, 한 인터뷰이는 보수신문의 기사를 읽고, “이제 이것을 비판하면 되냐?”는 장난 아닌 장난을 치기도 했다.

따라서 필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분석할 지점을 수집하지 못한 가운데, 지도교수와의 몇 번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추가로 대상자들에게 전화 통화를 지속해서 반복하여 특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질의를 묻고, 대답을 듣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자료 수집 기획 과정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그들의 ‘정치 참여’에 주제를 한정시켜 서술했다.

요컨대, 결과적으로 논문은 완성되었지만, 연구자의 인터뷰 진행방식, 인터뷰이와 인터뷰어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필자의 역량 부족을 또다시 크게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터뷰 수집 과정은 인터뷰 직전 인터뷰어가 어림잡아 짐작한 ‘라포의 깊이’와 ‘주제에 대한 인터뷰이의 속고’에 대해서 더 고심해야 한다는 성찰, 라포의 깊이와 인터뷰 논의의 진솔함이나 풍부함과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 그리고 인터뷰이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수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체감하는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점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응축한 인용문을 제시하면서 이 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타자를 서술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타자를 표상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억압성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는 타자를 말할 수 없는 것일까? 타자를 말하는 것은 금기일까? 바꿔 말해 어떤 특정한 문제는 그 당사자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란 도대체 누구인가? … 혹은 당사자는 자기 스스로를 서술할 수 있을까?”(오카 마리, 2000/2016, 81쪽)

위의 인용문은 필자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들과 상당 부분 짚어내고 있다. 여기서 오카 마리는 ‘타자’에 대해 말하기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지점들, 구체적으로 타자에 대한 분석이 발현할 수도 있는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억압의 위험성’과 주로 소수자를 비롯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당사자 범주의 애매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연구자 역시도 그들의 사적인 발화를 공적인 담론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대상자의 내밀한 의도나 다면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타자화시키는 분석을 개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이나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대상자들의 발화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가치가 깊숙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단발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면모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인터뷰 전에 설계한 이론 틀과 인터뷰 진행 및 해석이 복합적으로 깊이 연루되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 필자는 많은 고민을 하는 도중, 폴 윌리스(1978/2004)의 <학교와 계급 재생산>을 다시 읽고 참조하였다. 윌리스의 관점에 따라 필자가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청년 주체들의 내면적인 ‘의도’를 자의적으로 읽는 것을 경계하면서, 철저히 그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발화와 행동들에 근거하여, 미디어 담론과 그들을 둘러싼 조건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효과’의 차원인 그들의 주체화 형식이 재생산되는 단면을 중점적으로 포착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앞서 오카 마리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경험적인 연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필자는 매년 마다 겨울철이 되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수능 대박 나세요”라는 말에 모종의 기시감을 느끼곤 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실제로 실현되어 모든 수험생이 높은 시험 성적을 기록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대박’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필자의 10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긋지긋한 경쟁 서사로부터 거리를 두어보려는 나름의 시도였을지 모르겠다.

주변 청년들이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위한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실패한 가운

데, 필자는 문화연구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진학함으로써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한 발짝 떨어질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몇몇 다른 청년들이 영위하는 삶에 관해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필자는 이질적인 청년 세대들을 동일성을 띤 집단으로 단순하게 취급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양한 주체들을 동질화시키는 ‘청년’이라는 기표의 구성적인 효과를 역이용하여, 우리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묶음으로서 일종의 ‘공동의 세계’를 그려볼 요량이었다. 왜냐하면, 쉽사리 포착할 수 없는 우리의 복잡다단한 상황들을 언어화나 대상화를 통해서 객관화할 수 있을 때만, ‘내’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미 서로 깊숙이 연루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왜 가지 못하는지를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자는 많은 수의 청년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필자가 만난 대다수 청년층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 일할 기회의 부재, 안정된 삶의 불가능성, 지독하게 교정 불가능한 성적 불평등, 정치에 대한 불신, 갑질의 팽배,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 노동과 인명에 대한 경시”(김상민, 2016, 98쪽)라는 다종다기한 악조건들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게임을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구직 중인 청년들은 ‘생존’이라는 목표 아래 ‘정규직 노동자’ 되기의 행로를 따라 자신의 삶 전체를 드러나고, 주조하고 있었으며, 이미 ‘정규직 노동자’가 된 청년들은 몇십 년을 일해도 개인의 노력으로 구매할 수 없는 높은 집값과 대면하며 냉소나 체념의 감정을 내비치고 있었다.

요컨대, 소수의 운이 좋은 청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청년에게서 생존주의 서사를 깊이 체화한 면모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헬조선’이라고 호명되기도 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만 그리고 체념을 종종 드러내기도 했으며, 장기적인 미래를 기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 인식 속에서 자조감이나 우울감을 내비치곤 있었다. 이는 10년 전 의기양양하게 ‘명문대 학벌’이라는 상징자본을 손에 거머쥔 승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청년들은 ‘생존주의자’, ‘자기계발 하는 주체’, ‘속물’, ‘잉여’, ‘난민’ 등의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이 빈번하게 차용해왔던 몇 가지 ‘언어’로 쉽게 포착할 수 없는 다면적인 면모를 보였다. 연구자가 발견한 흥미로운 관찰점은 그들의 ‘정치적 의식’ 내지 ‘정치 참여 방식’이 ‘일상 유지’라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중심으로 한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한국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냉철하게 간파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지만, ‘일상의 유지’와 ‘정치적 실천’이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아쉬움을 느끼며, 머뭇거리고 있거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실천들을 포기하기 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만약 이러한 ‘정치적 실천’과 ‘일상 유지’ 사이의 경계 자체가 특정한 정치성의 발현태라면, 연구자의 분석 결과는 청년들의 삶을 구획하는 두 활동의 경계 허물어뜨리기를 향후 중요한 정치적 그리고 이론적 실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서 대다수 청년이 ‘일상 유지’를 무엇보다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생존주의자라면, 그들이 생존주의자이기에 공존주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세대 원들이 공유하는 생존주의 서사의 공명이 집단적인 행동으로까지 발전된 사례로 2013년에 일어난 ‘안녕들하십니까’ 열풍을 꼽을 수 있다. 청년당사자 중심으로 전개된 이 폭발적인 집단행동은 청년 개개인이 대면하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을 집단적인 자기 서사의 형식으로 표출한 느슨한 형태의 문화정치적 연대체라 논할 수 있다.

정원옥(2016)이 지적했듯이, 자신의 ‘안녕’을 중심으로 자기 서사의 정치적인 확장을 모색하는 ‘자기 정치’는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169쪽)도 있지만, 생존으로 수렴된 삶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파편화된 청년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의 힘을 연대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다. 이는 다시, 문화연구(학)의 전통적인 연구 대상인 구체적인 ‘일상’과 ‘정치적인 것’들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탐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물론 이것은 (청년) 문화연구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서술한 대로, 필자가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벌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커다란 한계점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주형일(2010)은 자기민족지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 중심의 타자화 효과가 발휘되는 가운데, 실제 지

방대를 다니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 내지 ‘차별적인 인식’에 대해 탐구한 바 있다. 더불어, 최종렬(2016)은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발현하는 문화적인 스타일의 특성을 ‘적당주의 집단 스타일’과 가족과 동료 등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고려하는 “자기 보존”의 집단적 유대와 경계감 그리고 이들이 공유하며 발현하는 ‘성찰적 겹연쩍음’을 중심으로”(송동욱 외, 38쪽) 풀어냈다. 이러한 탐색적 작업에 기반하여, 서울권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는 석사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청년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여, ‘지방’에 사는 - 따라서 충분히 청년 담론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 청년들의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삶의 방식을 조명하는 분석들이 요구되는 바이다(김선기 외, 2016).

더불어, 필자의 연구는 그것의 주요 분석 대상이었던 “청년층이 발산하는 사회 내 기득권층이나 지배적 질서와 통념에 대한 상징적인 비판이나 비판, 그리고 분노와 냉소 등의 주체 내부의 균열상을”(송동욱 외, 2017, 90쪽)에 충분히 치밀하게 진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대해 ‘헬조선’이라는 불리는 파국적인 현실상과 이에 대한 반영으로, 징후로, 대응으로 주조나 발현되는 대중문화 텍스트와의 조합적인 연구(김수환, 2011; 김홍중, 2016; 오혜진, 2013)나 구술사나 민속지학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에 더욱 천착하여, 일상을 두껍게 읽어내는 탐구(조은, 2012; 천주희 2016; 채석진, 2016)에 대한 후속 적업들이 요청된다.<sup>26)</sup>

요컨대, 청년당사자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여러 주체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각종 복잡다단한 감정의 결(texture) 또는 정동<sup>27)</sup>과 ‘정치적인 것’이 관계 맺는 양상 및 형식 그리고 그것들을 조건 짓거나, 매개하는 여러 사회경제적인 담론 내지 물질적 형태의 유무형의 텍스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년들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를 캐묻는 확장적인 탐구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비록 재구성된 마지막 연구에서 ‘이데올로기론’은 뒤편으로 물려났지만, 필자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이데올로기’론에서 떠나지 않았다. 필자에게 ‘자본주의’라는 거대서사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해 유효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이는데 이데올로기론과 경험적인 연구 사이의 여백을 메우는 작업은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10년 전 필자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가능성의 흔적들을 찾기도 했다.

라클라우(1990)는 지배적인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편적 이데올로기와 주체들의 구체적 삶 사이의 괴리’의 발현태라고 할 수 있는 ‘탈구(dislocation)’에서 찾는다. 서영표(2016, 154쪽)에 따르면, 탈구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담론적 질서 속에는 표상될 수 없는 사건 또는 위기”로서, “기존의 상징적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옥과도 같은 사회’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파행성과 희망의 소멸”(송동욱 외, 2017, 40쪽)의 형태로 재현되면서, 사회 구성체 재생산의 위기를 지시하는 ‘헬조선’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청년 주체의 갈래가 많은 ‘분열’상 역시 라클라우가 말하는 ‘탈구’의 집단적인 ‘발현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sup>28)</sup> 비록 탈구는 직접적으로

26) 필자는 삼포세대 담론이 “사회적 재생산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한 인터뷰이의 발화와 최근 ‘가임여 성분포지도’의 형태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공적인 담론의 외설적인 개입이 전개되는 현상을 심화된 관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푸코와 마르크스의 이론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구성한 실비아 폐데리치(2004/2011)에 대한 독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중세시대 ‘마녀사냥’의 형태로 표출된 여성혐오를 탐색함으로써 ‘계급의 여성화, 여성의 계급화’가 재생산되는 단면을 탐구한 그의 논의에 기반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침해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혐오의 문제를 ‘계급’과 ‘젠더’의 이분법을 넘어서, 문화정치경제학적인 권력 작동의 관계망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7) 부연하자면, 이데올로기론에 대한 심화적인 탐구를 진행하면서, 정동 연구와 이데올로기 연구를 혼합할 수 있는 작은 단서를 만날 수 있었다. 알튀세르 연구자인 최원(2016)은 알튀세르가 담론과 언어를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주체들의 ‘발화’가 담론구성체에 기반하여 발현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튀세르가 말하는 담론이란 언어의 기표를 비롯하여, “개념, 소리, 색깔, 제스처, 행위양식, 감정, 환상”(442쪽)과 같은 언어 이외의 다른 요소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들은 기존에 정립된 이데올로기(담론) 분석의 방법론을 발전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데올로기론과 ‘정동’ 내지 ‘감정’에 대한 연구를 결합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다고 논할 수 있다.

28) 이와 유사한 관점을 견지하는 이론적 사례를 들자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을 발전적으로 개조시킨 빌리 바르(1993)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내지 지배적인 체제가 전달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어진 사회적 관계 아래에서 관찰할 수 있는 “피지배자들의 상상의 특수한 보편화”(187쪽)라고 말한다. “보편화될 수 있는 상상적 경험은 지배자들의 체험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세계에 대한 인정 또는 승

주체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추동하지는 않지만, 지배적인 질서에 대한 저항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서영표, 2016). 만약 필자의 가설이 맞다면, 이러한 탈구의 계기를 어떻게 이데올로기적 반역 내지 저항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을까?

제임슨(1981)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텍스트에는 기대와 보상의 투사를 통해서 추동되는 유토피아적 충동이 담겨있으며, 이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유토피아’ - ‘해방’ - ‘참된 진실’ 대 ‘이데올로기’ - ‘억압’ - ‘왜곡된 거짓’이라는 이분법적인 경계를 휘젓는다. 따라서 가장 유토피아적인 것이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것이고,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가장 유토피아적인 것이다. 만약 제임슨의 어깨에 기댄다면, 이데올로기 분석이란 구조에 포섭된 수동적인 주체들을 가정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냉소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토피아적 충동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캐묻는 것에 가깝다.

앞서 서술했듯이, 필자가 만난 대다수 청년은 비록 생존주의의 서사를 체화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을 옥조이는 사회적 조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찰점은 희망과 냉소가 동시에 섞인 그들의 입에 사회적 안전망을 담보하는 복지 체계가 발달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이상적인 대안으로서 빈번하게 오르내렸다는 것이다. 만약 ‘지옥 같은 한국’에 대한 회의가 ‘북유럽’이라는 환상 섞인 장소에 대한 유토피아적 충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그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십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매개하고, 틀 짓는 조건들을 탐색함으로써, 그들 내면에서 복잡다단하게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주체의 ‘능동성’과 ‘수동성’의 이분법적 인식 틀을 넘어, 그들의 정치적 형식을 깊게 ‘이해’하는 동시에 발본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급진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천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

인과 저항 또는 반역을 동시에 함축하는 피지배대중들의 체험된 경험”(서관모, 1991, 18쪽)이라면, 국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이미 항상 전복될 수 있는 잠재적인 모순을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최원, 2016).

## 참고문헌

- 강태완 (2000).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문화사회학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研究>, 15호, 1-19.
- 고봉준 (2016). 신자유주의는 '청춘'의 내면을 어떻게 바꿔놓았나?- '청춘'이라고 쓰고 '기업가적 자아'라고 읽는다. 경희 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제 8회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 발표문.
- 고은강 (2011). '위험사회'에서 '자기계발'의 윤리학에 관한 小考. <정신문화연구>, 34권 4호, 99-119.
- 구미정 (2013). '잉여' 시대의 대학, 길 찾기. <현상과 인식>, 37권 3호, 39-55.
- 강내희 (2015). <일상의 문제와 문화연구,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2호, 12-44.
- 강정석 (2015). '이행기 청년'의 문제설정과 삶의 진로에 대한 연구. <진보평론>, 65호, 247-276.
- 강준만 (2009). <입시전쟁잔혹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명구 (2014). 어떤 학자와 교수를 키울 것인가- 대학평가와 지식생산.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1호, 127-168.
- 김동춘 (2006).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 서울: 길.
- 김수환 (2011).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탈경계인문학>, 4권 2호, 101-123.
- 김상민 (2016). 청년이라는 난민 - 국민도 시민도 아닌 난민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 <문화/과학>, 88호, 95-113.
- 김상민 외 (2013). <속물과 잉여>. 서울: 지식공작소.
- 김상봉 (2004). <학벌사회>. 한길사.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권, 207 - 248.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8.
- 김선기·이상길 (2014). 어떻게 '문화연구자'가 되는가? - 문화연구 전공 대학원생들의 정체화 과정에 대한 탐구. <언론과 사회>, 22권 4호, 95-156.
- 김선기 외 (2016). <청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동향의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서울: 고함20 청년연구소.
- 김성윤 (2010). 대학생, 대학생문화, (불)가능성의 조건. <역사비평>, 92권, 105-132.
- 김승수 (2010). 신자유주의적 통시성과 개신교적 주체의 정체성 구성: 개신교 선교단체 청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린 외 (2016). '헬조선 현상'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기-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재현작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0호, 40-114.
- 김영찬 (2011). 1970년대 텔레비전 외화시리즈 수용 연구-자기민속지학과 구술사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5권 6호, 5-29.
- 김초롱·오세일 (2017). 대기업 청년 퇴사자의 진정성과 자기계발 :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화된 자아' 구성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103-139.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집 1호, 179-212.
- 김홍중 (2016). <사회학적 파상력>. 파주: 문학동네.
- 마동훈 (1997). 문화이론, 문화연구 그리고 미디어 연구, <언론과 사회>, 18권, 180-192.
- 박권일 (2016). '헬조선', 체제를 유지하는 파국론. <황해문화>, 90호, 73-86.
- 박해광 (2003). <계급, 문화, 언어>. 파주: 한울.
-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8권 제1호, 7-41.
- 백승우 (2017). <생각하는 마르크스>. 서울: 북콤마.
- 서관모 (1991).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개념. 사회과학연구, 15권 1호, 5-20.
-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울: 돌베개.
- 서동진 (2010). 자기 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61호, 37-54.
- 서동진 (2015). 세대론의 시좌. 계간 문학선. 가을호.
- 서영표 (2016). 라클라우가 '말한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재해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13권 1호, 130-165.
- 송동욱 (2016). 청년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삼포세대 담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일반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송동욱·이기형 (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삼포세대' 그리고 '헬조선' 이라는 호명에 대한 청년주체들의 체화된 대응과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4호, 28-98.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호, 35-60.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서울: 개마고원.
- 오헤진 (2013).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우리문학연구>, 38호, 463-488.
- 오헤진 외. (2016). 우리 세대의 비평. <문화과 사회>, 제29권 제3호, 46-101.
- 이기형 (2011a). <미디어 문화연구와 문화정치로의 초대 - 민속지학적 상상력의 가능성과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 논형
- 이기형 (2011b).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69-297.
- 이기형 외 (2015). 청년주체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구직 경험의 문화적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72호, 7-51.

- 이동연 (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37, 135-153.
- 이동후 (2009).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보>, 23권 3호, 409-448.
- 이상길 (2004). 문화연구의 아포리아 : '위기담론'에 대한 반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79-109.
- 이상길 (2015). 탈식민지 상황에서 '비판적 문화연구'를 가르치기. 한국방송학보, 통권 29권, 5호 67-99.
- 이우창 (2016). 헬조선 담론의 기원. <사회와 철학>, 32호, 107-158.
- 이영주·이병주·홍성일 (2008). 현존하는 적대, 부재하는 이론 : 미디어문화연구의 비판적 성찰. <비판언론학 20년의 성찰과 전망>, 61-77.
- 엄기호 (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 푸른숲.
- 엄기호 (2016).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파주: 창작과 비평.
- 윤상호 (2016). 정신분석적 담론에 대한 문화이론적 고찰 : 문화연구에서 정신분석의 정치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논문.
- 조문영 외 (2017). <헬조선 인 앤 아웃 - 떠나는 사람, 머무는 사람, 서성이는 사람, 한국 청년 글로벌 이동에 관한 인류학 보고서>. 서울: 놀민.
-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서울: 또하나의문화.
- 주은우 (2013). 문화(정치)경제학과 현대 자본주의 비판. <경제와사회>, 통권 제99호, 184-211.
- 주형일 (2007). 왜 나는 스파이더맨을 좋아 하는가: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모색. <언론과 사회>, 15권 3호, 2-36.
- 주형일 (2010).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 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적용. <미디어, 젠더&문화>, 제13호, 75-113.
- 제이슨 바커·이재원 (2016). 빗나간 마주침. <문화/과학>, 86호, 490-527.
- 전규찬 (2014). "재치문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유년기 라디오 체험에 관한 짧은 자기민속지학.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3-74.
- 정민우 (2013). 지식 장의 구조변동과 대학원생의 계보학, 1980~2012. <문화와 사회>, 15권, 7-78.
- 정원옥 (2016). 재난 시대, 청년 세대의 문화정치 -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서 포스트잇 추모 행동까지. <문화/과학>, 통권 제88호, 157-175.
- 정정훈 (2017). 이데올로기와 어펙트, 혹은 '인간학적 조건'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 루이 알튀세르와 브라이언 마수미 사이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통권 제90호, 402-429.
- 천주희 (2016).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 대한민국 최초의 부채 세대, 빚 지지 않을 권리를 말하다>. 파주: 사이행성.
- 채석진 (2016). 친밀한 민속지학의 윤리. <언론과 사회>, 24권 3호, 47-88.
- 최원 (2016). <라캉 또는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적 반역과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서울: 난장.
- 최철웅 (2010). 20대, 냉소적 속물들의 인정투쟁. <실천문학>, 99호, 404-412.
- 최철웅 (2011). 청년 운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66호, 15-50.
- 최태섭 (2013). <잉여사회>. 서울: 응진지식하우스.
- 표예인 (2017). 청년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학 - 두산 '사람이 미래다' 광고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1호, 125-166.
- 허민·최은혜(2017). 한국의 대학원생은 어떻게 공부를 지속하는가 - 인문학 분야의 연구환경실태 분석 보고서. <대학: 담론과 생점>, 1권, 98-117.
- 한윤형 외 (2011).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서울: 응진지식하우스.
- Adorno, T. (1966). Negative Dialectics. Continuum Intl Pub Group. 홍승용 (역)(1999). <부정변증법>. 한길사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윤형숙 (역)(2003). <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
- Balibar, E. (1993). The Non-contemporaneity of Althusser. 윤소영 (역)(1993) '비동시대성',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183-84.
- Federici S. (2004). Caliban and the Witch. <캘리번과 마녀 -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황성원·김민철 (역)(2011). 서울: 갈무리
- Jameson, F.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 Jameson, F. (1990). Late Marxism : Adorno, or The persistence of the Dialectic. London : Verso. 김유동 (역) (2000). <후기 마르크스주의>. 서울: 한길사.
- Grossberg, L. (1997). Bringing it all back home: Essays on cultural studies. Duke University Press.
- Horkheimer, Max. (1936). Critical Theory: Selected Essays. Matthew J. O'Connell (역)(1972). NY: Seabury.
- Laclau, E. & C. Mouffe. (1990). Post-Marxism without apologies. London: Verso.
- Williams, R. (1978). Marxism and litera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박만준 (역)(2009).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서울: 지만지.
- Willis, P. (1978). Learning to labor. Farnham: Ashgate Publishing. 김찬오·김영훈 (역)(2004). <학교와 계급 재생산>. 서울: 이매진.

- Zizek, S. (1989).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이수련 (역)(2001). <이데올로기라는 송고한 대상>. 서울: 인간사랑.
- 오카 마리 (2000). 彼女の「正しい」名前とは何か：第三世界フェミニズムの思想.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이재봉·사이키 가쓰히로 (역)(2016). 서울: 현암사